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의 시험부정 목인자에 대한 평가가 사회복지조직의 비리 목인자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 :내부고발 역기능에 대한 염려와 내부고발 보호장치 필요성의 이중매개효과검증을 중심으로

Effect of Social Work Students' Evaluation toward Connivers of Exam-Cheating on their
Evaluation toward Connivers of Corruptions in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Both Perceptions of Their Concern of
Dysfunction of Whistle-Blowing and of Necessity of Protection Arrangement for
Whistle-Blowers

이원준

창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Won-June Lee(wjlee@cs.ac.kr)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시험부정행위를 목인하는 학우에 대한 평가가, 사회복지조직의 비리 목인자에 대한 평가에 미칠 수 있는 직접효과와, 내부고발의 역기능에 대한 염려와 내부고발자를 위한 보호장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각각 미칠 수 있는 이중매개효과를 밝히는 것이다. 분석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험부정 목인자'에 대한 평가는 사회복지조직의 비리 목인자에 대한 평가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211^{***})을 미쳤다. 둘째, 시험부정 목인자에 대한 호감도가 높을수록 내부고발 역기능에 대한 염려도 증가(.098^{***})하였고, 내부고발자를 위한 보호장치의 필요성(-.191^{***})은 감소하였다. 그리고 내부고발 역기능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할수록, 사회복지조직 비리 목인자에 대한 호감도가 증가하였고(.245^{***}), 내부고발자를 위한 보호장치의 필요성을 많이 인식할 수록, 내부고발자에 대한 호감도는 감소(-.122^{***})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내부고발자를 위한 보호장치 필요성(.158; 하한값 .133, 상한값 .217)과 내부고발 역기능에 대한 염려(.074; 하한값 .0433, 상한값 .122)는 각각 유의한 매개효과를 미치는 것이 확인되어 이중매개(double mediators)의 효과가 입증되었다. 밝혀진 주요 내용들을 토대로, 사회복지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모색하기 위해서 논의하고 제안하였다.

■ 중심어 : | 사회복지조직 | 비리 목인자 | 시험부정 | 보호장치 | 내부고발 | 역기능 |

Abstract

The predominant concerns of the study consist of: (1) the direct effects of social work students' evaluation toward connivers of exam-cheating on their evaluation toward connivers of corruptions in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2) the dual mediation effects of their concerning dysfunction of whistle-blowing and needing of protection arrangement for whistle-blowers. The notabl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evaluation toward a person conniving at exam-cheating significantly has an effect on the evaluation toward connivers committing corruptions in social welfare organizations(.211^{***}). Second, the more positive evaluation for connivers of exam-cheating, the more concerning dysfunction of whistle-blowing, the less needing protection arrangement for whistle-blowers(-.191^{***}). The students, concerning dysfunction of whistle-blowing more, show less negative evaluation toward a person, conniving at corruption in social welfare organizations(.245^{***}). The more needing protection arrangement for whistle-blowers, the less positive evaluation regarding whistle-blowers in the organizations(-.122^{***}). Lastly, both mediating effects of the needing protection arrangement for whistle-blowers and concerning about dysfunction of whistle-blowing are significant so dual mediator are proved. Some practical implications are discussed based on the study's findings.

■ keyword : | Social Welfare Organization | Conniver | Cheating | Protection Arrangement | Dysfunction |

I. 서론

사회복지 실천(social work practice)의 목적은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손상된 사회기능(social functioning)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복지실천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비영리 조직인 사회복지조직은 일반 사회조직과 분명히 구별되는 기능과 특성을 지니고 있다.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돕는 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사회복지 조직에서 발생된 부정부패 및 비리사건(인권침해사건, 재정 및 인사비리 등)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도되었을 때, 일반인들이 느끼는 실망감과 분노는 그만큼 더 클 수밖에 없다[1].

대부분의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은 상당수의 후원자(sponsors)를 확보하고 있는데, 후원자들의 지원은 사회복지기관의 복지사업을 운영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후원자들은 자신의 소중한 물질, 재능 또는 노동을 기부하면서 보람과 기쁨을 느끼고 정신적인 만족감(또는 웰빙)을 경험하게 되는데[2], 이들의 후원활동이 지속(또는 강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후원하고 있는 기관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지원해온 사회복지기관(시설)이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실망이 매우 클 것이다. 후원기관(시설)에 대한 불신감은 후원중단 사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2].

최근에는 SNS, 인터넷 등을 활용한 홍보를 통한 모금방법 등 사회복지조직의 모금방식은 다양해지고 있다. SNS, 인터넷 등을 이용한 모금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3][4], 사회복지조직의 비리사건도 SNS, 인터넷을 이용하여 그만큼 더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다는 의미이고, 비리가 알려진 해당 사회복지조직의 후원자들의 이탈현상도 그만큼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사회복지조직의 비리사건이 알려졌을 때, 해당 기관이 치러야 할 비용(cost)과 손실은 실로 막대하다[2].

사안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사회복지조직의 비리로 인한 피해와 부정적인 영향은 기관(시설)의 운영자는 물론, 종사자, 서비스 대상자(클라이언트) 및 그 가족,

지역사회까지도 확대될 수 있다.

사회복지조직의 비리가 쉽게 드러나지 못하고, 상당 기간동안 숨겨진 문제로 감추어진 것은, 그 조직의 종사자들이 비리를 알고도 침묵하고 묵인하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특히 사회복지시설들의 지리적인 위치 또한 사람들의 왕래가 적은 격리된 곳에 있는 경우가 많고, 서비스 대상자들(clients)도 스스로 생활이 어려운 요보호 대상자들(정신·신체 장애인, 노약자)이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조직에서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사건이 발생해도, 내부의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한 외부로 노출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사회복지조직의 비리를 밝히기 위해서는, 관련 행정당국의 감시가 강화되어야 하지만, 그 조직에서 근무하는 종사자(혹은 과거의 종사자)들에 의한 내부고발(whistle-blowing)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사회복지조직에서 발생한 비리에 대해서는 내부자(insiders)가 가장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내부고발은 사전적 부패억제 도구로서 그 파급효과와 상징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내부고발은 사회복지조직에서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5]. 이러한 내부고발이 지닌 순기능이 사회복지조직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내부고발에 관한 선행연구는 행정학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져왔고, 부정부패 및 비리대상을 주로 공무원에 초점을 둔 경향이 있다[5-7]. 근래에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내부고발에 대한 연구가 발표된 바 있다[8-10].

부정부패 및 비리에 대한 사람들의 비판의식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높아지고 있지만, 조직의 내부자의 내부고발행위에 대한 평가는 양극단에 이를 만큼 매우 다양하다[8-11]. 내부고발자에 대한 평가는 자기희생을 감수하고 아주 정의롭고, 소신 있는 행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개인의 연고자하는 이득 및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하는 부도덕한 행위, 조직의 배신자, 또는 조직 부적응자의 자기합리화를 위한 행위 등 부정적인 평가들도 많다[8]. 조직의 비리를 내부자가 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발생된 비리에 대해 상

당히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내부고발로 행동화되는 경우는 오히려 드문 것이 현실이다.

시험부정행위(컨닝)는 대학생들이 대학에서 경험하는 대표적인 비리로 간주할 수 있다[8].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의 경우에도, 학우(들)의 시험부정행위를 목격하고도 교수님이나 관계자에게 알리지 않고 묵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현상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서, 상당수는 졸업 후에 사회복지 관련기관에서 활동하게 된다. 대학생활에서 학우의 시험부정을 목격하였을 때,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묵인하였다면, 졸업 후에 취업하여 자신이 근무하는 사회복지조직에서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도, 비리를 알리기보다는 오히려 비리를 묵인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추론을 해 볼 수 있다.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들이 대학과정에서 보인 시험부정행위에 대한 대응양상이, 졸업 후 자신이 일하는 사회복지조직에서 발생한 비리에 대한 대응양상에 미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영향(효과)을 실증적으로 규명해보는 것은 흥미로운 연구과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직(집단)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 및 비리 관련 선행연구들은 조직의 비리를 알리는 내부고발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5-7], 조직의 비리를 알리고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묵인한 사람들(conniver)에 대한 연구는 소홀하였다. 조직의 비리를 알았을 때, 내부자로서 고발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른 체 묵인하려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 조직의 비리 목인자의 특성과 관련요인을 규명해 볼 수 있는 실증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바이다.

조직의 내부고발이 조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를 억제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 내부고발의 순기능임에도 불구하고, 내부고발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 즉, 역기능에 대한 염려(concern)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내부고발로 인해 개인적으로 감수해야 할 위험부담(직장 상실, 승진 및 보직에서의 불이익, 동료관계 악화, 나쁜 평판 등)은 매우 크다[9].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에서 내부고발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는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내부고발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와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현실이, 내부고발을 어렵게 하고, 조직의 비리를 알고도 묵인하게 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추론을 해 볼 수 있다.

이상 전술한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시험부정 목인자’에 대한 평가가 ‘사회복지조직 비리 목인자’에 대한 평가에 어느 정도 직접적인 영향(직접효과)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내부고발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M1) 그리고, ‘내부고발자 보호장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M2)이 각각 시험부정 목인자에 대한 평가가 사회복지조직 비리 목인자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얼마만큼 유의미하게 매개(mediation)할 수 있는지 함께 밝혀보고자 한다. 자료분석을 통해서 밝혀진 주요 사실들을 근거로, 사회복지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선행연구검토

1. 조직비리에 대한 내부자의 고발과 묵인

‘내부고발’(whistle-blowing)은 “조직내부의 변화를 유도할 공식적 권한을 갖지 않은 조직의 전·현직 구성원이 내부의 불법적·비도덕적 일이나 부당한 행위 등을 목격하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내·외부의 조직 또는 사람에게 이를 알리는 행위”이다[5]. 조직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 및 비리문제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그 조직에서 일하는 또는 일했던 종사자들이다. 따라서 조직의 구성원이 조직에서 발생한 비리를 함구할 경우, 조직의 비리가 알려지기는 어렵다. 조직의 비리를 내부자가 알리는 내부고발은 “조직의 부패억제도구로 그 파급효과와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다[5]. 이러한 내부고발이 가진 긍정적 효과, 즉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내부자가 자신의 조직에서 발생한 비리를 고발하는 일은 오히려 드물다.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크게 보도된 바 있는 A 지역의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있었던 불법

적, 부도덕한 사건 또한 상당기간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동안 감추어진 채 드러나지 않았었다[1]. 이러한 현상은 조직의 비리를 알고도 조직의 구성원들 다수가 침묵해왔다는 것이며, 내부고발이 결코 용이하지 않은 조직의 특성 및 조직문화를 시사해주는 측면이기도 하다.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는 서구의 문화권과 달리, 관계 중심적인 도덕성 및 윤리를 중시하는 집합주의 문화권에 있는 한국사회”에서는, 내부고발자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8][12]. 박광국·주효진·김옥일은 집단(조직) 구성원들의 신념, 태도, 가치관, 행동 등에서 동질성이 강조되는 사회에서, 집단(조직) 동료로부터 경시되고 소외되었을 때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고 피력한 바 있다[5]. 내부고발행위는 주변 사람들(직장동료, 친구, 기타 지인들)과의 유대관계를 소원, 단절시켜 내부고발자가 고립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두려움이 내부고발 발생을 억제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사회복지조직에서 비리가 발생한 것을 알고 있는 다수의 종사자들이 비리를 고발하기 보다는 비리를 묵인하는 현상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내부고발자가 겪게 될 수 있는 개인적인 피해는 대인관계 뿐 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손실(실직위험, 인사 불이익, 부정적 평판) 또한 심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큰 위험부담(risk-taking)을 감수하고 내부고발을 실행하기는 쉽지 않다고 사료된다.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지원해 주기 위해 마련한 법률적·제도적 장치로 ‘부패방지법’에 내부고발자 보호조항(2001.6.8)을 두고 있지만, 관련 법률적 장치가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나가는 노력은 지속되어야 하겠지만, 내부고발을 억제하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자신이 속한 조직의 불법적, 부도덕한 비리를 알게 되었을 때,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는 경우에도, 내부고발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내부고발자(whistle-blower)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믿음이 없는 한, 내부고발자가 되기보다는 비리묵인자의 역할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2. 비리에 대한 대응과 학습효과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 대학생활에서 시험을 볼 때 학우들의 시험부정행위를 목격하였지만, 그 시험부정 행위를 담당교수 또는 관계자에게 알리지 않고, 부정행위를 알고도 묵인하는 ‘비리 묵인자’로 행동하였다면, 졸업 후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사회복지조직에서 발생한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비리들에 직면(confrontation)하는데 어려움을 가질 것이라는 가정을 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은 학습이론과 학습이론에 뿌리를 둔 자기효능감 이론에서 그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13]. 대학과정에서 교육적 경험을 통해 얻은 학습효과가, 졸업 후 사회복지조직에서 유사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업무효능감이 ‘대리학습’(vicarious learning)을 통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비리대응을 위한 적응유연성

진술한 바와 같이, 자신이 속한 또는 속했던 조직에서 발생한 “불법적 혹은 비도덕적 일이나 행위”를 내부자로서 고발한다는 것은 특히 한국의 조직문화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5]. 조직에서 발생한 비리를 고발하는 내부고발자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위험요인들(실직, 취업 및 인사상 불이익, 동료 및 직장에서의 부정적인 평판, 배신자 낙인 등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지만, 위험요인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위험요인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위험요인으로 인한 역기능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긍정적인 요인을 강화시키는 개인의 ‘적응유연성’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 모색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내부고발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많을수록, 혹은 ‘내부고발자 보호장치의 필요성’을 많이 인식할수록, 시험부정행위를 묵인한 자에 대한 평가가 사회복지조직의 비리 묵인자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력을 상당히 유의미하게 매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론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론적 근거로는 ‘적응유연성’ 또는 ‘회복 탄력성 이론’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14][15].

적응유연성 이론의 기본 전제는 어려움 또는 역경에

도 불구하고, 개인의 적응 유연성(resilience)수준에 따라서, 개인의 적응 및 대처수준은 유의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내부고발자가 보호받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충실한 법률적·제도적 장치마련은 위험요인의 역기능을 상쇄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보호요인(Protection factor)으로 간주할 수 있다. 보호요인이 강화될 때, 조직의 비리를 알고도 모른 채하는 비리 목인자들이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보호요인이 강화될 때, 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적응유연성을 높일 수 있음은 ‘사회지지원론’ 뿐 만 아니라, ‘적응유연성 이론’에서 그 이론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상 논의점을 토대로, 본 연구를 통해서 규명해 보고자하는 연구질문 및 이론적 근거를 요약·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리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시험부정 행위(컨닝)를 목격하고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시험부정 목인자에 대한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대학생들의 평가는, 사회복지조직(기관, 시설, 단체)에서 발생한 불법적, 부도덕한 일이나 행위를 목격하고도, 묵인하는 조직 비리 목인자에 대한 평가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직접효과)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정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연구질문의 주요 이론적 근거는 사회학습이론 및 자기효능감 이론이다.

둘째,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의 시험부정행위 목인자에 대한 평가가 사회복지조직 비리 목인자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내부고발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와 내부고발자 보호장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각각 유의한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연구가정을 설정하였다. 내부고발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는 내부고발을 어렵게 하는 위험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 내부고발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많을수록, 조직의 비리를 알고도 묵인하는 비리목인자를 긍정적인 평가를 할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라 추론해 볼 수 있다. 반면, 내부고발자를 위한 보호장치는 비리를 묵인하지 않고 내부고발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내부고발자를 위한 보호장치의 필요성을 많이 인식할수록, 조직의 비리 목인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추론을 해 볼 수 있다. 내부고발

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와 내부고발자 보호장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각각 사회복지조직의 비리목인자에 대한 평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시험부정행위 목인자에 대한 평가가 사회복지조직의 비리목인자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한층 더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는 이중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연구가정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연구가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로 ‘적응유연성 이론(resilience theory)’을 제시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주요변인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경로를 도식화한 본 연구모형은 아래 [그림 1]에서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보고자 하는 주요 연구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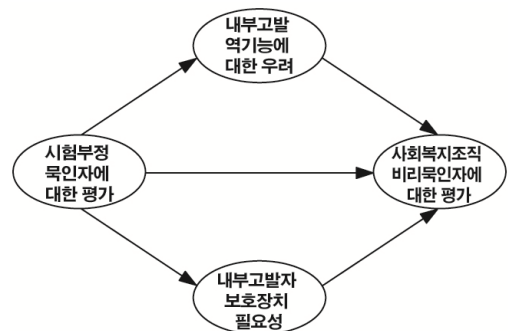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도

1.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이 시험부정행위를 목격하고도 묵인하는 ‘시험부정 목인자’에 대한 평가는 사회복지조직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 및 비리를 목격하고도 알리지 않는 ‘조직비리 목인자’에 대한 평가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2. 내부고발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역기능에 대한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의 우려(concern), 그리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제도

적 ‘보호장치 필요성’은 각각 ‘시험부정 목인자’에 대한 평가가 ‘조직비리 목인자’에 대한 평가를 각각 유의미하게 매개하는가?

2.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한 조사대상자는 A광역시 및 B도 지역 대학(6개)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이고,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을 위한 자료(data)를 얻었다. 설문조사에 소요된 기간은 약 2개월(2012.10-12)동안 이루어졌다. 최종자료분석에 사용된 표본수는 954명(남학생 309명, 여학생 645명)이다.

3. 주요변수 및 측정도구

3.1 종속변인: ‘조직비리 목인’

사회복지조직에서 발생한 비리를 목격하였지만, 조직의 내부자로 비리를 고발하지 않고 묵인한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척도(이하 ‘조직비리 목인’ 척도)이다. 사회복지조직에서 비리가 발생한 상황과 비리를 목인하게 된 배경을 설명한 시나리오의 내용은 선행연구와 대학에서 흔히 발생되고 있는 컨닝 사례 등을 참조하여 구성하였다[9]. 조사응답자들에게 본 연구자가 설문지에 제시한 시나리오 내용을 먼저 읽고, 해당 척도문항들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척도문항(6개)은 시나리오에서 소개된 비리 목인자의 성격특성에 대한 평가(소신있음, 성숙함 등)를 위한 문항(2)과 대인관계 측면(친구, 집단 구성원, 동료, 부하, 상사관계 등)에서 비리목인자에 대한 관계 선호도를 알아보는 문항(4) 내용이다. 김기범·김시업의 내부 고발자에 대한 지각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 문항내용을 참조하여 구성하였다[12]. 조직비리 목인척도(6개 문항)는 5점 척도(1=거의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로, 척도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Cronbach's α 계수로 평가하는 척도 문항의 신뢰도는 .853이다.

[사회복지조직 비리 발생과 목인상황 시나리오]

"K씨는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지역에서

잘 알려진 A 복지재단 산하의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력 3년차의 사회복지사이다. K씨는 자신이 속해 있는 기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클라이언트를 돕기 위해서 사용해야 할 예산을 책임 관리자 및 일부 직원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부당하게 지출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기관의 책임 관리자와 일부 관련 직원들은 워크샵 등을 핑계로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을 드나들기도 하고, 워크샵과 직접 관련이 없는 물건 구입(예: 스키, 리프팅, 바다낚시 등)을 하는 등, 불법적인 지출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부당한 예산 집행이 일회성도 아니고 수년간 지속되어 오고 있었다"[9]. K씨는 관리책임자와 팀장이 기관에서 부당하게 예산을 지출해 온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 관리책임자와 직원들이 징계를 받을 것이고, 후원금이나 자원봉사자들도 감소하여 기관의 사업 및 서비스를 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어, 책임 관리자와 팀장이 시키는 대로 K씨는 침묵하고 가만히 있기로 하였다

3.2 독립변인: ‘시험부정 목인자에 대한 평가’

‘컨닝 목인’에 대한 개인의 인식정도를 평가하는 척도(이하 ‘컨닝 목인 척도’)는 대학생들이 학우의 시험(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등) 부정행위(컨닝)를 목격하고, 그 부정행위를 고발하지 않고 묵인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호감도(혹은 비호감)을 가지는지를 평가하는 척도이다. 이 척도를 위해 조사응답자들에게 먼저, 시험부정을 목격하고, 목인하게 된 배경과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설명을 시나리오 내용에 포함시켰다. 관련 선행연구의 관련 내용과 대학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는 시험부정사례를 검토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다[8]. 조사응답자에게 본 연구자가 작성한 시나리오를 읽게 한 후, 컨닝을 목인한 사람(학우)의 행위자에 대한 평가를 묻는 척도문항(6개)내용을 구성하였다. 문항 내용은 선행연구에서 내부고발자 지각에 대한 평가에서 고려한 성격적 측면(소신, 성숙)과 대인관계 혹은 사회적 측면(정의, 신뢰, 집단성원으로서 협조적인 정도 등), 관계선호도(친구) 등의 내용 등을 반영하여 척도문항내용(6문항)을 구성하였다[12]. 5점 척도(1=거의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로, 척도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평

가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Cronbach's α 계수로 평가하는 척도문항의 신뢰도는 .851이다.

[컨닝발생과 목인상황의 시나리오]

“김준영(가명) 학생은 모 대학 사회복지학과 2학년 학생이다. 가정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못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장학금을 타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중간고사 및 학기말 고사 때, 몇몇 학우들이 컨닝을 하는 것을 종종 목격하였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컨닝을 한 학생들 중에는 장학금까지 받았다는 것을 알고 몹시 불쾌하였다”[8]. 김준영 학생이 컨닝을 한 학생들의 부정행위를 보고(고발)하지 않고 눈감아 주기로 결정한 상황은 다음과 같다. 김준영 학생은 만약 자신이 그 부정행위를 보고할 경우, 컨닝을 한 그 학생들은 학과에서 견책(처벌)을 받을 것이며, 그 학생들은 자신들의 부정행위를 보고한 자신(김준영)을 비난할 것이고, 관계가 아주 나빠질 것이라 생각하면서 마음에 부담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의 학과의 이미지에도 좋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록 자신과 같이 컨닝을 하지 않고 양심껏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컨닝을 한 학생들 때문에 피해를 보지만, 비리학생을 고발하지 않고, 결국 이 문제를 눈감고 침묵하기로 하였다.

3.3 매개변인:

① 내부고발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concern)

내부고발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 즉, 내부고발의 역기능에 관한 내용에 대해 응답자들이 얼마만큼 우려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척도이다. 본 척도의 문항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유형을 탐색한 박광국·주효진·김옥일(2001)연구에서, 내부고발행위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려하고, 회의적인 생각을 피력한 내용(예: “동료 간의 우정 및 신뢰 등의 가치를 파괴할 수 있다.”, “직장분위기가 경직될 우려가 있다.”, “배신자로 응징을 받을 수 있다.” 등)를 참조하였다. 이 척도(7개 문항)은 5점 척도(1=거의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로,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내부고발 행위자에

대해 우려와 회의적인 시각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Cronbach's α 계수로 평가하는 척도 문항의 신뢰도는 .852이다.

② ‘보호 장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필요성에 대해서, 응답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척도이다. 척도(6개 문항) 문항 내용은 선행연구에서 소개한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내용들(예: 신분보호, 비밀보장, 피해 및 명예회복, 보상 등을 위한 보호제도 입법화 관련 내용 등)을 검토하여 7개 문항 구성된 척도를 구성하였다[5]. 5점 척도(1=거의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이다. Cronbach's α 계수로 평가하는 척도문항들 간의 신뢰도는 .831이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문제들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구조방정식(SEM)분석을 위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절대 적합지수(RMSEA)와 상대적 적합지수(CFI, TLI)를 모형의 적합도 평가를 위해서 제시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한 통계 패키지는 프로그램은 모형에 포함된 이중 매개(double mediators)의 분석이 용이한 Mplus 6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전체 매개효과의 유의도만 제시되고, 개별매개효과의 유의도 검증이 용이하지 않은 통계 소프트웨어(예: AMOS 등)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었고, 본 연구모형에 포함된 이중 매개 검증을 각각의 개별 매개효과 뿐만 아니라 두 매개효과의 크기 차이의 유의성 또한 제시할 수 있었다

매개효과는 편향수정 부트스트래핑(bias-corrected bootstrapping)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절효과 분석을 위해서 다집단분석(multi-group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였다.

IV. 분석결과

1. 주요 변수들의 특성

주요 변수들의 평균값은 [표 1]의 내용과 동일하다. '조직비리 목인자에 대한 평가'(M=2.3526), '시험부정 목인자에 대한 평가'(M=2.5529)는 중간 점수(3점='그저 그렇다')보다는 낮다. 사회복지조직의 비리 목인자 혹은 대학생의 시험부정 비리자에 대해 호감을 가지는 정도에 대한 평가에서, '호감을 가지지 않는 편(2점)' 수준보다는 다소 높지만, '그저 그렇다'(3점)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주요변수들의 특성

주요척도	평균	SD
사회복지 조직비리 목인자에 대한 평가 (1-5점 척도)	2,3526	.7590
시험부정 목인에 대한 평가 (1-5점 척도)	2,5529	.6949
내부고발 역기능 우려 (1-5점 척도)	3,1214	.7467
내부고발자 보호장치 필요성 (1-5점 척도)	3,8829	.6978

내부고발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 척도값(M=3.1214)은 척도의 중간 점수(3점='그저 그렇다')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내부고발자 보호장치 필요성(M=3.8829)은 척도의 중간 점수(3점)보다 훨씬 높고, 긍정적인 평가인 '그런 편이다'(4점)에 가까운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측정변인들의 정규성

본 연구모형에 포함된 주요 잠재변수들(조직비리 고발자에 대한 평가, 시험부정 비리 목인자에 대한 평가, 내부고발 역기능에 대한 우려, 내부고발자 보호장치 필요성)을 각각 구성하는 관측변수들의 정규성을 검증하였다. 각 측정지표들의 왜도는 -1.199-.675로 절대값이 2를 넘지 않았고, 첨도값의 범위로 -.790-1.054으로 절대값 7을 넘지 않아, 일변량 정규성을 인정할 수 있다. 주요 변인들의 상관계수값의 절대값이 .571 이하이어서, 다중공선성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었다.

3. 확인적 요인분석

4개의 잠재변인들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측정변인들

(indicators)의 표준화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시험부정 목인자에 대한 평가'(.461~.840), '조직비리 목인자에 대한 평가'(.433~.901), '내부고발 역기능에 대한 우려'(.627~.732), '내부고발자 보호장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284~.798)등 네 변인의 요인적재량이 모두 유의하였다. 측정변인(26개)들이 잠재변인을 잘 반영하고 있다. 다중상관 자승값(.08-.811)도 모든 측정 모형의 개별항목의 구성이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적합도들($\chi^2=1256.594$, $df=293$, $p.000$, $TLI=.898$, $CFI=.908$, $RMSEA=.059$)은 기준을 충족하여 비교적 양호한 적합도임을 확인하였다.

4. 경로분석

본 연구모형이 포함하고 있는 경로들의 직·간접 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 먼저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RMSEA =.059, CFI =.906, TLI=.896)는 양호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2]와 [표 2]에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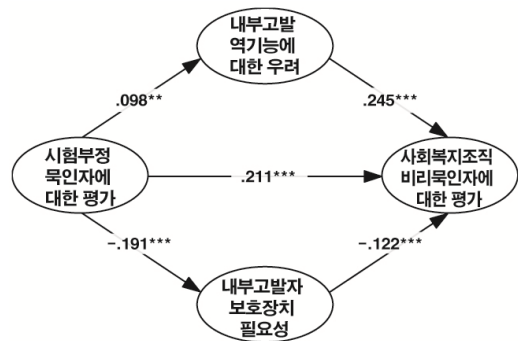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도

대학에서 학생들 간에 발생하는 시험부정을 알고도 담당교수 혹은 관계자에게 알리지 않고 목인하는 사람(시험부정 비리 목인자)에 대해 어느 정도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한 평가인 '시험부정 비리 목인자'에 대한 평가는, 사회복지조직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알고도 비리사실을 알리지 않는 '조직비리 목인자'에 대한 평가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211***)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졌다.

내부고발 역기능에 대한 ‘염려’(0.74; 하한값 .043, 상한값 .122), 그리고 내부고발자를 위한 ‘보호장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0.158; 하한값 .133, 상한값 .217)은 각각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대학의 시험부정 비리 목인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수록, 내부고발로 인한 역기능에 대한 우려도 증가(0.098**)하고, 내부고발로 인한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클수록, 사회복지조직의 비리목인자에 대해 보다 호감을 가지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내부고발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는 시험부정 목인자에 대한 평가가 사회복지조직의 비리 목인자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한층 더 증폭시킬 수 있는 유의한 매개요인이 입증되었다.

표 2. 모형의 경로추정치(N=954)

직접효과	표준화 추정치	비표준화 추정치	표준 오차	C.R / P.
시험부정 목인자평가→ 내부고발자 보호장치 필요성	-.191	-.217	.043	-5.042***
시험부정 목인자 평가→ 내부고발 역기능에 대한 우려	.098	.115	.044	2.620**
시험부정 목인자 평가→ 조직비리 목인자 평가	.211	.140	.026	5.401***
내부고발자 보호장치 필요성 → 조직비리목인자 평가	-.122	-.071	.021	-3.343***
내부고발 역기능에 대한 우려 → 조직비리목인자 평가	.245	.138	.023	6.098***
간접효과	표준화 추정치	비표준화 추정치	신뢰구간	
시험부정 목인자 평가 → 내부고발 역기능에 대한 우려 → 조직비리목인자 평가	.074	.082	Lo: .043 Hi: .122	
시험부정 목인자 평가 → 내부고발자 보호장치 필요성 → 조직비리목인자 평가	.158	.175	Lo: .133 Hi: .217	
내부고발 역기능에 대한 우려와 내부고발자보호 장치 필요성의 매개효과 차이검증	Lo: -.156, Hi: -.025			
모형의 적합도	$\chi^2 = 1277.911, df=294, p.000, TLI=.896, CFI=.906, RMSEA=.059$			

***p<.001, **p<.01, *p<.05

대학의 시험부정 비리 목인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수록, 내부고발자 보호장치의 필요성을 더 적게 인식하고(-.191***), 내부고발자 보호장치의 필요성이 높을수록, 사회복지조직의 비리 목인자에 대해 호감도가 더 낮아지는 현상(-.122***)이 발견되었다. 내부고발자를

위한 보호장치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시험부정 비리목인자에 대한 평가가 사회복지조직 비리 목인자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유의한 매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보호장치 필요성을 더 많이 인식하는 사람의 경우, 시험부정 비리 목인자에 대한 평가가 사회복지조직 비리 목인자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본 모형에서 설정한 이중 매개효과는 입증되었다. 내부고발 역기능에 대한 우려의 매개효과(M1)보다는 내부고발자 보호필요성의 매개효과(M2)가 더 유의하게 크다는 사실 또한 확인되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사회복지조직(기관, 시설)의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비리사건들이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지기까지 상당기간 조직 안에서 은폐되어 드러나지 않은 것에 주목하면서, 이는 다수의 조직구성원들이 비리를 목인했기 때문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이것이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된 출발점이 되었다.

조직의 비리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내부자에 의한 내부고발은 조직의 비리 예방과 대처에 그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인식할 때, 사회복지조직의 종사자들 다수가 조직에서 발생된 비리를 목격하고도 목인해 온 현상에 주목하면서, 사회복지조직의 비리 목인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지금까지 내부고발에 대한 연구는 특정학문 영역(예: 행정학)에서 이루어졌지만, 연구내용이 내부고발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조직비리 목인자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다. 사회복지조직에서 발생한 비리를 종사자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목인하는 것은 비리를 지속 또는 강화시키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사회복지조직 목인자의 특성 및 관련 요인들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사회복지조직의 비리 목인자에 대한 개척연구로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대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비리행위 중에 대표적인 비리로 간주할 수 있는 시험부정(컨닝)을 목격하고도 담당교수 또는 관계자에게 알리지 않는 '시험부정 목인자'에 대한 이들의 평가가, 이들 중에 상당수가 졸업 후에 근무하게 될 사회복지조직에서 발생한 비리를 알고도 목인하는 '조직비리 목인자'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력(직접효과)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둘째, '내부고발 역기능에 대한 우려(concern)' 그리고, '내부고발자 보호장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각각 시험부정 목인자에 대한 평가가 사회복지조직 비리 목인자에 대한 평가를 각각 어느 정도 유의하게 매개하는지 이중매개(double mediator) 효과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자료분석 결과 밝혀진 내용을 정리해보면, 첫째, 시험부정을 알고도 목인한 사람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긍정적인 평가를 할수록, 사회복지조직의 비리목인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둘째, 시험부정 목인자에 대해 호감을 가질수록, 내부고발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문제 및 역기능(직장상실, 취업상 불이익, 인사상 불이익, 부정적 평판, 낙인 등)에 대한 우려 또한 높고, 내부고발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많을수록, 사회복지조직 비리목인자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험부정 목인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내부고발 보호장치의 필요성을 덜 인식하는 경향이 발견되었고, 내부고발 보호장치에 대한 필요성을 더 많이 인식할수록, 사회복지조직의 비리 목인자에 대해 보다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시험부정 비리목인자'에 대한 평가가 '사회복지조직 비리목인자에 대한 평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내부고발역기능에 대한 우려' 혹은 '내부고발자 보호장치 필요성'이 각각 유의한 매개효과(부분매개)를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내부고발 역기능에 대한 우려'보다 '내부고발보호장치의 필요성'이 미치는 매개효과가 더 유의하게 큰 것으로 밝혀졌다[표 2].

주요 발견점을 토대로, 사회복지적 함의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첫째, 미래의 사회복지사를 꿈꾸며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대학생활에서 경험하는 시험부정(컨닝)에 대한 문제 및 비판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교육과 지도를 강화하는 것은, 사회복지조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문제를 예방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는 실천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다.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이 학우(또래)의 시험부정행위를 목격하였을 때, 목인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직면(confrontation)하면서, 문제제기를 하고 부정행위를 알릴 수 있도록 장려하여 학생들의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업은 사회복지학과 소속 관련 학과 교수들이 주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실천 윤리과목과 접목하여 사회복지조직에서 발생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불법적, 부도덕한 사례들을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다양한 상황에서 윤리적 이슈를 소집단 중심으로 토론하면서, 학생들 스스로 윤리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내용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복지윤리관련 교과목의 필수과목 지정과 비중을 늘리고 더불어, 윤리관련 프로그램에 일정시간 이상 참여하거나 관련 워크샵 등을 이수한 경우에만,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인 접근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교육적 접근은 이들의 시험부정행위를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 뿐 만 아니라, 졸업 후 이들 중 상당수가 사회복지사로 활동하게 될 사회복지조직에서 불법적, 부도덕한 비리가 발생했을 때, 비리를 목격하고도 침묵하는 '조직비리 목인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자료 분석결과, 시험부정행위를 목격하고도 목인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사회복지조직의 비리 목인자에 대한 평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내부고발자 보호장치 필요성'이 미치는 매개효과가 내부고발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미칠 수 있는 매개효과보다 그 영향력이 더 유의하게 크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충실히 집행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는 과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현실적인 위험부담이 큰 조직의 내부자로서 조직의 비리를 알리는 고발자를 보

호하고 지원하는 사회적 장치가 강화될 때, 내부고발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도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 전공대학생들의 시험부정을 목인하는 행위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를 할수록, 사회복지조직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비리 또한 목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긍정적인 효과 또한, 내부고발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내부고발자를 위한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사회적 노력이 병행될 때, 크게 기대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사회복지조직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알고도 목인하는 사람(‘사회복지조직 비리 목인자’)에 대해서 조사응답자(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응답자에게 비리가 발생한 상황과 배경을 설명한 [시나리오]를 함께 제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단순하게 작성된 척도문항들을 리커트 방식으로 평가하도록 설계된 척도에 비해서, [시나리오]를 함께 제공하고, 관련 척도문항에 대해 리커트 방식으로 각각 평가하도록 한 것은, 조사응답자들의 사회복지조직의 비리를 알고도 목인하는 사람(‘비리목인자’)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 응답자들이 모두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평가하도록 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조사응답자들에게 제시했던 [시나리오] 내용은 사회복지조직(기관, 시설, 단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성격의 비리를 반영하지 못한 명백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둘째, 본 연구는 2012년 말 설문조사를 토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최근의 국정논단 사태 등으로 인해 높아진 학생들의 부정부패 관련 인식같은 시대적 흐름이 반영되지 못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최근 사회복지전공생들과의 비교 연구 등을 통해 시대적 변화추이, 기관종사자로 성장한 학생들의 추적연구 등을 통한 개인의 변화추이 등을 알아보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조직의 ‘비리 목인자’에 초점을 두고, 시도한 개척연구의 성격을 지닌 본 연구는 연구내용의 범위 및 목적에서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한 다양한 형태의 비리문제를

포괄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고, 본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못한 개인 특성 변수(심리적 특성, 사회경제적 배경 등), 사회복지조직의 특성, 관계성을 중시하는 집단 중심의 사회문화적 특성 등을 반영한 연구로 확장되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참고 문헌

- [1] 대구일보, “인권 유린·각종 비리 근절…내년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 <http://www.idaegu.com/?c=6&uid=363302> (2017. 5. 14), 2017.
- [2] 이원준, “개인기부자들의 정서적, 가치적 효용감이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자기수용의 매개효과와 삶에 대한 감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11호, pp.166-178, 2016.
- [3] 이정은, 신현덕, “클라우드펀딩 사이트의 게시글 정보가 펀딩 성공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6호, pp.54-62, 2014.
- [4] 권혁인, 이승하, 나운빈, “클라우드펀딩의 성공·실패 사례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7호, pp.125-136, 2014.
- [5] 박광국, 주효진, 김옥일, “조직내 내부고발에 대한 인식유형 분석,” 한국행정학보, 제35권, 제1호, pp.109-125, 2001.
- [6] 박홍식, “내부고발 (whistle-blowing): 이론, 실제, 그리고 함축적 의미,” 한국행정학보, 제25권, 제3호, pp.769-782, 1991.
- [7] 고길곤, 조수연, “관행수용도와 부패: 시민의 관행수용도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 한국행정학보, 제46권, 제3호, pp.213-239, 2012.
- [8] 이원준,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의 컨닝에 대한 인식이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제38권, pp.201-224, 2017.
- [9] 신성자, 이원준,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의 내부고발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부정적 인식이 사회

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 권닝 고발자에 대한 평가의 매개효과와 통제능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제25권, 제1호, pp.63-88, 2017.

[10] 이원준, 이희진,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의 사회적 책임성이 사회복지조직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옹호개입의지의 매개효과와 기독교 유무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제72호, 2017.

[11] T. Barnett, "Why Your Company should have a Whistle-blowing Policy," SAM Advanced Management Journal, Vol.57, No.4, pp.37-43, 1992.

[12] 김기범, 김시업, "내부고발자에 대한 지각," 한국심리학회:사회 및 성격, 제20권, 제4호, pp.47-59, 2006.

[13] A. Bandur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Vol.84, No.2, pp.191-215, 1977.

[14] N. Garnezy, "Children in poverty: Resilience despite risk," Psychiatry, Vol.56, No.1, pp.127-136, 1993.

[15] F. Walsh, *Strengthening family resilience*, Guilford Publications, 2015.

저 자 소 개

이 원 준(Won-June Lee)

정회원



- 2010년 2월 :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석사)
- 2013년 2월 :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창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기부, 사회복지윤리